

항저우AG 향한 대장정...“다시 시작이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양궁장에서 열린 2021 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전에서 여자부 선수들이 연습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2022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26일 계급장 떼고 ‘슛오프’

안산·김제덕 등 ‘도쿄스타’ 출전...기보배·최미선 재도전 광주·전남 공사 21명 ‘1차 관문 도전’...남녀 각 32명 가려

“도쿄의 영광을 뒤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양궁연맹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장정이 시작됐다.

대한양궁협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2022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전을 개최한다.

1차 선발전은 2021년도 국가대표 남녀 각 8명을 비롯해 올해 치러진 국내대회 개인전 1-3위 입상자, 기존기록(남자 1천323점, 여자 1천347점)을 통과한 남자 102명, 여자 100명이 출전한다. 중학교 3학년 선수 가운데 전국대회 개인전 우승자도 참여 기회를 갖는다.

2020 도쿄올림픽과 2021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양궁을 세계에 빛낸 오진혁(현대제

철),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 안산(광주여대),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도 계급장을 떼고 원점에서 다시 활시위를 당긴다.

여기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혜진(LH), 최미선(순천시청), 구분찬(현대제철)과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도 대표팀 복귀에 도전한다.

광주·전남에서는 남자 9명, 여자 12명이 국가대표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광주에서는 현 국가대표인 안산(광주여대), 이승운(남구청), 최민선(광주시청)이 태극마크 수성에 나선다. 지난해 최종 선발전에서 아쉽게 4위에 그치며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이승운의 각오는 남다르다.

여기에 지난 5월 열린 전국 남·여중별선수

권 양궁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하며 남구청장단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된 이경희(남구청)도 도전장을 던졌다.

이밖에 광주여대 김민서(3년)와 조선대 이진용(3년), 김정훈(3년), 김민서(1년)는 광주 양궁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광주체고 6인방 유인선(3년), 강민재(3년), 이정우(2년), 조민서(3년), 탁해운(3년), 조수혜(1년)도 ‘차세대 광주 양궁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과녁을 정조준한다.

전남에서는 순천시청 박서진(28), 최미선(25), 이은경(24)과 순천대 강수빈(3년), 전남체고 윤보미(3년), 순천고 조국(3년), 순천여고 남수현(1년)이 이름을 올렸다.

선발전 첫날인 26일에는 70m 4회 기록 합계로 남녀 각 64명이 가려지며, 27-29일 토너먼트-리그전 배정을 합산해 남녀 각 32명이 선발된다.

첫 관문을 통과한 상위 남녀 각 8명은 오는 12월 인천선수촌 입촌, 동계훈련에 참가한다.

대한양궁협회는 내년 3월 중 2022년도 양궁 국가대표 2-3차 선발전전을 개최해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2021 대학축구 U리그’ 7권역 우승을 차지한 광주대 축구부선수단. <광주대 제공>

광주대, 대학축구 U리그 7권역 우승

“우리는 왕중왕戰으로 간다”

광주대 축구부가 ‘2021 대학축구 U리그’ 7권역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네 번째 권역 우승이다.

광주대는 지난 22일 동강대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3-0으로 승리, 최종성적 10승 3무 1패 승점 33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 U리그’는 역대 최다인 85개 팀이 참가해 펼쳐졌다.

이번 리그는 지역별로 1권역에서 11권역까지 나눠 진행됐으며, 상위 32개 팀이 내달 12일부터 영덕에서 열리는 왕중왕전을 통해 챔피언을 가린다.

광주와 전북지역 대학들이 모여있는 7권역에는 광주대를 비롯해 우석대와 전주대, 호남대, 원광대, 한일장신대, 군장대, 동강대가 경쟁을 펼쳤다.

이승원 광주대 축구부 감독은 “올해 3월 전국대회인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왕중왕전 우승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며 “선수들의 프로팀 진출로 전력에 공백이 있지만 체력과 조직, 전술훈련을 통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이 24일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덴마크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경기를 벌이다 부상을 당해 코트에 주저앉아 있다. /EPA-연합뉴스

‘우승문턱’ 부상 악재 안세영, 준우승 ‘분루’

덴마크오픈 결승서 기권

한국 여자 배드민턴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덴마크오픈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벅지를 다쳐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24일 덴마크 옌센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덴마크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1-2(21-18 23-25 5-16)로 패했다.

안세영이 먼저 1세트를 따냈지만 2세트를 듀스 집전 끝에 야마구치에게 내 준 것이 뼈아팠다.

이어진 3세트에서 5-16으로 끌려가던 안세영은 허벅지 부상을 당해 경기를 포기했다.

이어 치러진 여자 복식 결승에서도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가 중국의 황동광-정위에게 0-2(15-21 17-21)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여자 단·복식 준우승 성적으로 대회를 마친 한국 대표팀은 26일부터 열리는 2021 프랑스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광주, 역대 최다메달, 최고점수, 최고 순위 ‘종합 7위’

전남, 목표보다 4계단 상승 ‘종합 10위’ 쾌거



전남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과 신영용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여자 좌식배구팀을 격려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5일 열린 축구(남성) 7인제 결승에서 부상을 상대로 5대1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연패를 차지한 전남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전남 장애인체육 ‘飛上’

광주, 사격 김근수 4관왕·김영진 등 3관왕 9명 배출 전남, 축구(남성) 2연패, 육상 이미옥 ‘5년 연속 3관왕’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광주선수단이 종합순위 7위라는 역대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역대 최다메달, 최고점수, 최고 순위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9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54개 총 17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역대 최초 종합득점 10만점을 넘어선 10만8천203점을 기록했다.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체점 체

계가 바뀐 이후 최고 점수를 획득한 광주는 종합순위 7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특히 종목별 종합순위 2위를 기록하며 역대급 성적을 올린 펜싱·배구를 비롯해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한 보치아·양궁의 선전이 돋보였다.

육상, 탁구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광주 장애인체육의 화려한 비상을 알렸다. 실업팀 지원을 받아 단체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 개인종목 위주로 구성된 광주시가 종합득점 10만점 이상을 획득한 것은 불모지에서 거둔 기적 같은 성과다.

이번 대회에서 사격의 김근수는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비롯해 단체전에서 한국신기록 2개,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 2개를 세우며 4관왕으로 광주시 최고 다관왕이 됐다. 탁구 김영진, 육상 김하은-이승훈(이룡제)·이수연, 사격 박동안·이지석, 역도 정현정, 휠체어펜싱 조은혜는 각각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신기록 등 각종 기록도 양산했다. 정현정이 역도 -46kg급에서 3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운 것을 비롯해 역도 -66kg 정지승, 수영 자유형 50m S2 정봉기도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양궁의 김옥금은 컴파운드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새로 썼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6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39개 등 총 11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득점 8만6

천089점으로 종합 10위를 차지했다.

지난대회 종합 14위 성적을 거둔 전남은 골볼·론볼·축구 등 고른 종목 활약에 힘입어 목표로 했던 종합순위를 4단계나 끌어올리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전남 직장운동경기부 축구(남성)는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육상 이미옥(한전KPS)은 원반던지기·창던지기·포환던지기에서 5년 연속 3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박영순(덕수학교)은 육상 여자 1500m에서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당구 여자 BIW 정선정(대신기공)은 2관왕을 차지하며 전남선수단의 선전을 견인했다.

이같은 전남 장애인체육의 선전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기업연계 취업 선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전남장애인체육회의 뒷받침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실제 기업연계 프로젝트에 참가중인 선수 31명은 이번 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 전남 경기력 향상에 큰 힘을 보탤다. /박희중 기자

KBO ‘좁아진 스트라이크존’ 내년부터 ‘규칙대로 넓힌다’

KBO가 내년부터 심판 평가 기준을 개선해 스트라이크존 확대를 도모한다.

KBO는 25일 심판의 스트라이크존 판정 평가 기준을 현행 일관성 중심에서 2022시즌부터 타자 신장에 따른 개인별 스트라이크존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KBO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데이터 분석 결과 스트라이크 존이 전반적으로 좁아졌다고 밝혔다.

좁아진 스트라이크존을 바로잡기 위해 올 시즌 뒤 심판들의 준비 및 적응 기간을 거쳐 2022시즌부터 좌우 홈플레이트와 각 타자의 키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KBO는 공식 야구규칙의 스트라이크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심판들이 야구 규칙에 명시된 스트라이크존을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야구규칙 ‘용어의 정의’ 73항에는 스트라이크존을 ‘유니폼 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 중간의 수평선을 상한선으로 하고, 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한다. (좌우 폭은) 홈 베이스 상공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

KBO는 스트라이크존 개선을 통해 공격적인 투구와 볼넷 감소, 경기 시간 단축 등의 변화를 유도하고 팬들의 불신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